

전주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가동

18~22일까지 교통대책상황실 비상근무·공영주차장 6곳 무료 개방 등 추진

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시민과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교통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교통 관련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

기 위한 비상근무에 나선다.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도 교통흐름관찰용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차량 이동상황을 파악하고 교통 정체지역의 단력적 신호 운영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또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등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은 ▲종합경기장(20~22일, 638면) ▲동물원(20~22일, 840면) ▲노송천(20~21일, 70면) ▲한옥노상(20~21일, 131면) ▲삼전2동(21일, 194면) ▲서신동(21일, 131면) 등 6곳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정상 가동한다. 장애인

콜택시 이직률의 경우 주·야간 상관 없이 24시간 운영되며, 벽지·오지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바로온'도 14대가 정상 운영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 이면도로의 노후화되고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명절 이전까지 완료하고, 전주역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소 10곳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점검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봉사자도서관' 개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1층에 조성·본격 운영

'책의 도시'를 선포한 전주시가 도심 곳곳에 여행자도서관, 숲속시집도서관 등 이색도서관을 조성·운영 중인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특화도서관도 생겼다.

시는 전북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1층에 봉사자도서관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봉사자도서관은 나눔·공유·상생·환경을 테마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의 독서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원봉사 관련 도서와 함께 가족 단위 이용자를 위한 민화 등 아동도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주제별 도서 등으로 서가를 채웠다.

이 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 활성

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특수언어 교육과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서 추천 프로그램, 봉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독서 방법을 교육받고 공유하는 프로그램과 가치관을 담은 문장을 쓰는 프로그램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자연생태관 일원서 반딧불이 전시·사진전

전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전주자연생태관 일원에서 '2021 전주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가을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반딧불이의 생태적 이해와 생태계 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주자연생태관과 전주반딧불이탐방 공식 홈페이지(www.jeonjubanbul.kr)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주요 행사로는 ▲반딧불이 및 호랑나비 생물 전시 및 사진전 ▲반딧불이 온라인 탐방(현장 영상) ▲반딧불이 생태 특강(유튜브) ▲반딧불이 열쇠고리 만들기 프로그램(어린이집·유치원생 대상)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특히 반딧불이는 삼천 일대(삼천교~신평교 좌안)에서 13~17일 저녁 7~8시경 관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삼천변 산책로 이용시 랜턴 등 밝은 빛을 비추는 행위나 반딧불이 채집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기센터,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1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추석 선물용품·제수용품 등 대상 원산지 표시 유무 등 조사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추석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유무 및 표시 방법 등의 적정성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변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단속 거부 등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정책과장은 "판매자들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잘 이행해 주시고, 소비자들 또한 제품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고·풍남초 강당, 전북도 등록문화재 제1·2호 지정

100년 넘는 역사·전통 자랑... 학교 건축 건축적 양식 잘 보여주고 있어

전주고등학교 소강당과 풍남초등학교 강당이 올해 신설된 전라북도 등록문화재 제1호와 2호로 지정됐다.

전주시는 역사적·건축학적 가치가 큰 전주고등학교 소강당과 풍남초등학교 강당이 전라북도가 지정하는 등록문화재 제1·2호로 각각 지정·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주고등학교와 풍남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모두 100년이 넘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북 인재의 요람으로서 지역교육사의 생생한 현장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전북도 등록문화재 1호에 지정된 전주고 소강당 모습.

먼저 지난 1940년 지어진 전주고 소강당의 경우 현재 유도관으로 사용 중으로, 원형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근대 학교 건축의 건축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강당은 내부에 기둥 없이 확 트인 개방공간 내에 무대, 중2층부, 복층 아케이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1936년 세워진 풍남초 강당 또한 근대 학교 건축의 건축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초에 비해 3간 정도가 확장됐으며, 화장실 보수 등 재건축이

이뤄져 지금도 강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부는 기둥 없이 확 트인 개방공간 내에 무대를 갖추고 있다.

서해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고 및 풍남초 강당의 전라북도 등록문화재 지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문화재 지정을 늘려가는 것뿐 아니라 지

정된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전주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고 및 풍남초 강당의 전라북도 등록문화유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전라북도 등록문화재를 신청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전북대,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협력

전주시가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신청을 앞두고 전북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13일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에서 전주시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국토부 공모 신청에 앞서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 지속가능한 전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전북대학교 부지가 포함된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북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북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부지 활용 및 사업 추진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전북대는 실무협의

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업무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오는 30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모에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구역은 과거 전주시의 핵심 상권이었던 전북대와 종합경기장 일대를 포함하는 공간이다. 시는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기능을 도입하고 경제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구상이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신도시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침체된 덕진권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